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망년지교)

1. 개 요

○ 여행주제(목적) : 여행을 통해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감동과 행복을 줄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천국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문명의 발상지 피렌체, 고딕건축양식의 밀라노 두오모, 친퀘테레 해안마을등 현대에서 고대건축양식의 진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 공단이 벤치마킹 하기에 최적의 나라가 아닌가 한다.

○ 여행국가: 이탈리아

(로마,오르비에토,베니스,밀라노,피사,피렌체,폼페이,나폴리)

○ 여행기간: 2018. 06. 18. ~ 06. 26. (7박9일)

○ 대 상 자: 6명(구자철,이경화,곽재순,서승원,이지연,김경미)

○ 이탈리아 국가개요

- ▷ 국 명 : 이탈리아공화국
- ▷ 정부형태 : 공화제
- ▷ 면 적 : 301,340km²(세계72위 CIA 기준)
- ▷ 인 구 : 약 59,291,000명(세계23위 2018 통계청 기준)
- ▷ 민 족 : 이탈리아인
- ▷ 종 교 : 카톨릭 98%
- ▷ 언 어 : 이탈리아어
- ▷ GDP : 2조 1,819억\$(세계 8위 2018 IMF 기준)
- ▷ 화폐단위 : 유로화
-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 병역제도 : 지원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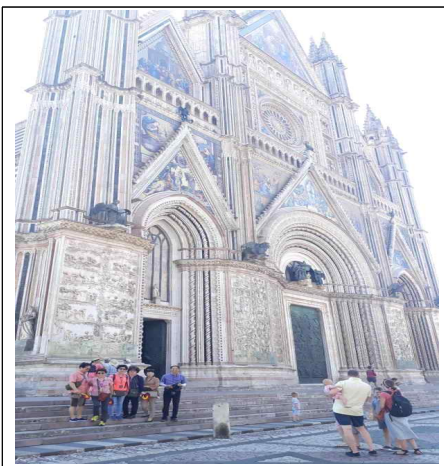
2. 일정별 배낭여행 수행내용

○ 제1일차 : 부산 → 인천 → 로마

○ 제2일차 : 오르비에토 - 아씨시 방문

▷ 이탈리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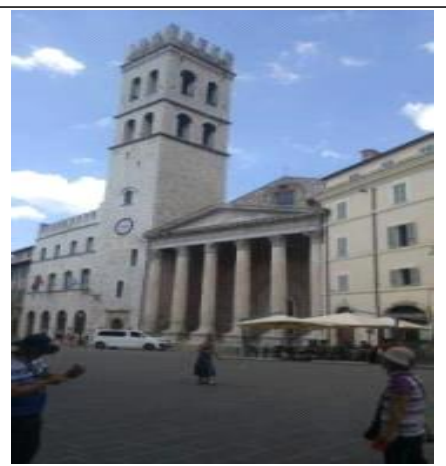
- 수백년이상 오래된 집과 건축물들 이지만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 할수 있다 한다. 페인트 색깔도 정해진것만 해야 하고 길도 고대에 깔린 돌길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사를 위해 바닥을 파야할땐 공무원들이 나와 돌에 일일이 번호를 새기고 사진을 찍어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유지관리 방법과 자세에 생각이 많아진다.



오르비에토 두우모성당



성 프란체스코 성당



산타클라라 성당

▷ 오르비에토 대성당 - SLOW CITY

- 이탈리아 고딕양식의 대표라 할수 있고 1290년에서 1330년 사이에 세워졌고 시에나성당에서 영향을 받은 R.마이타니가 설계했다.

내부의 산 브리치오예배당에는 L.시뇨렐 리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있다. 제단의 천에 예수의 피로 물든 이른바 '볼세나의 기적'을 기념해서 지어진곳이다.

'느리게 살자'라는 뜻의 치타슬로(CITTASLOW)는 1999년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오르비에토에서 시작된 도시운동이다. 우리나라도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11곳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지 않은가.

▷ 아씨시(ASSISI)

- 성(聖)프란체스코 및 성녀(聖女) 클라라가 탄생한 가톨릭 순례지의 하나이다. 로마제국 시대부터 번성하였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굴곡이 심한 좁은 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다. 한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프란체스코 성자의 도시답게 평온한 분위기

가 느껴졌다. 중세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클라라 성녀에게 봉헌되었다는 산타클라라 성당은 몹시 여성스럽고 프란체스코 성인의 삶에 감명받아 18세기에 수녀가 되어 그를 따르고 그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 검약을 모토로 '클라라'수녀회를 설립하여 전 생애를 청빈, 검소, 기도로 보낸 성녀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 제3일차 : 베네치아 - 물의 도시 베니스

▷ 부산의 자연환경과 비교하여 토의

- 시가지는 본래 석호의 사주(砂洲)였던 퇴적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따라서 근래 지반침하와 석호의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하는데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모세 프로젝트'를 계획, 준공하고 있으며 베네치아와 아드리아 해 사이에 있는 석호에 플랩게이트라 불리우는 방벽을 세워 해일이나 태풍 따위가 일어날 경우 막아내는 것이다
- 부산의 해운대 센텀쪽에는 큰 규모의 매립이 진행된 곳이다
설계 당시 자연친화적인 부분과 관광상품에 대한 의식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었고 공단위주의 개발보다 영구적인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하겠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 곤돌라 같은 시설이 카지노와 같은 위락시설이 있는 곳에 건설되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시설물이다.



산마르코 대성당과 광장



베네치아 곤돌라



리알토 다리

○ 제4일차 : 베로나 → 밀라노

▷ 관광산업과 한국의 한류를 생각하며 토의

- 베로나는 줄리엣의 집이 있다는 곳이다. 사실 진짜도 아니다.
그렇지만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상과 사진찍기를 원한다. 아마 '레터스 투 줄리엣(Letters To Juliet 2010)'이라는 영화때문 일까?
이런것도 관광상품화 할수 있다면 우리의 한류를 이용한 관광상품에 영화와 드라마를 잘알려야 겠다 생각이 든다.
영화의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투자할 일이다.

		
줄리엣의 집	밀라노 대성당	비토리오 에마누엘레2세 갤러리아

▷ 이탈리아 경제, 패션의 중심지 밀라노(Milano)

- 갤러리아는 롯데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온 듯한 느낌의 아케이드 형식의 천장구조물이 반갑다. 다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바닥의 모자이크 타일만은 우리보다 우위인 듯 하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최대의 대도시권 이다. 둘러볼 관광지로 밀라노대성당, 스칼라극장, 비토리오 에마누엘레2세 갤러리아, 성 암브로시우스성당,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만찬'이 소장된 성마리아 성당도 있는데 예약을 해야 하며 전화 연결이 어렵다

○ 제5일차 : 친퀘테레 해안 마을 → 피사의 사탑

▷ 부산이 가진 천혜의 해변을 생각하며 토의

- 인터넷에서 사진이 주는 감흥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할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원도 거제 외도 보타니아보다 나은 것 없고

이곳 전체가 흑산도나 한려해상공원 특별히 나은것도 없는 것 같다. 중세부터 있는 옛성당 유적과 적당한 풍경과 먹거리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것을 보면 한국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과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겠다.

- ▷ 박지성이 묵었다는 호텔에 한국 국기가 없고 상점들마다 중국어로 된 메뉴판만 보인다. 더욱 실력을 키우고 힘써야 겠다.

		
베르나차 마을	마나롤라 마을	피사의 사탑

▷ 친퀘테레

- 이탈리아 북서부 라 스페치아 지방의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5개의 각기 다른 개성의 해변마을은 파스텔톤의 집과 좁은 골목 길, 동화같은 포구와 소담스런 레스토랑이 어우러져 있다. 마을은 절벽 위의 좁은 길로 연결 돼 있을 뿐 자동차는 쉽게 닿지 못한다. 마을 사이로 해안 절벽을 따라 유일하게 열차가 오가며 그 열차에서 내려 원하는 마을에 하룻밤 묵은 뒤 다른 마을로 걷는 행복한 걷기 여행이 좋을 것 같다.

유네스코가 이 마을들과 절벽 길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 피사의 사탑

- 피사에 오는 이유는 기울어진 탑을 보러 온다. 오랜 연구과 발전된 기술로 바로 세울수는 있겠으나 그해야할 필요를 못느낄 것이다. 약간 바로 세웠다는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다.

중세 시대에 대성당과 종탑, 세레당, 무덤을 지으면서 탄생한 피사의 '기적의 광장'은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리학상 중요한 발견을

한 장소이다. '피사의 사탑'이라는 종탑에서 이루어진 실험에는 중력의 법칙을, 대성당에 매달린 등불의 움직임에서는 진자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일찍이 지중해에 이름을 떨친 해군 도시 피사는 과학사에서도 중요한 도시다.

○ 제6일차 : 피렌체 - 르네상스의 발상지 꽃의 도시

▷ 배낭여행에서 발견하는 휴머니즘

- 예전 냉전시대에 철의 장막이라는 말이 비슷할까 감히 도전하지 못할 중세의 종교 원리주의에 대항해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끈질긴 힘을 느끼게 하는 경외심을 도시를 덮은 붉은 지붕들에서 느끼게 한다.

▷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메디치 가문이며 이름에서 보듯이 약국에서 출발한 가문이다. 피렌체가 토스카나공국의 수도가 되고 세습 체제가 되었으나 추방과 복귀가 되풀이 되었다

이 가문의 지원으로 다빈치,미켈란젤로 외에도 보티첼리,라파엘로,단테, 갈릴레이 갈릴레오,도나텔로,마키아벨리,브르넬레스코등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절로나는 천재들의 고향이다.

한때 메디치가(家)의 저택이었던 팔라초-피티(궁전)는 현재 미술관이고, 그 밖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이름높은 아카데미아 미술관, 바르젤로 미술관이라는 통칭으로 알려진 국립미술관, 안젤리코의 벽화로 유명한 산마르코 미술관 등이 있다



미켈란젤로 광장



피렌체성당 두우모



아르노강 배경

○ 제7일차 : 폼페이 → 소렌토에서 카프리섬으로 → 나폴리

▷ 잊혀졌던 로마제국의 도시, 폼페이

- 기원후 79년에 베수비우스(이탈리아어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엄청난 자료를 남겨준 그 곳 바로 폼페이다. 역시 예전의 도시답게 언덕위에 지어진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사실 로마시대에는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다. 오히려 화산의 다른쪽 능선에 있던 -역시 마찬가지로 화산폭발로 묻혀버린 - 헤르쿨라네움(에르콜라노)이라는 도시가 해군기지로서 당시에는 더더욱 중요한 곳이지만 헤르쿨라네움은 화산에 너무 가까웠던 탓에 폭발로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폼페이는 용암이 아닌 화산재가 덮혀서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로 발굴이 가능했다고 한다.

		
폼페이 유적지	소렌토항	카프리섬

▷ 소렌토항 → 카프리섬

- 소렌토하면 유명한 노래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떠올리게 된다. 비토리오 베네토 가에 있는 호텔 임페리얼 트라몬타노에는 로비에 명판이 걸려 있다. "괴테,바이런,키츠,셸리,스콧트,라마르틴,롱펠로우 등이 머물렀고, 스톡 부인이<소렌토의 아그네스>의 영감을 얻었으며, 입센이 6개월간 머물면서 <유령>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잠바티스타 쿠르티스 (GiambattistadeCurtis,1860~1926)가 유명한 노래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이 호텔 테라스에서 작곡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카프리섬 일주를 위해 소렌토 시내를 일부만 구경하였으나 소렌토항의 진한 코발트블루 바다에 취해 배타고 카프리섬으로 출발한다.

▷ 카프리섬 → 나폴리

- 카프리섬 : 티레니아해에 있는 작은 섬 카프리(Isola di Capri)는 나폴리만의 남쪽 입구 부근, 소렌토 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섬은 그리스의 식민지였으며, 로마 제국 초기 황제들의 휴양지로 이용되고 영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도 자신들의 요트를 타고 신혼여행을 즐겼고 축구선수 박지성도 신혼여행을 갔을 만큼 유명합니다. 물이 부족하지만 기후가 온화하여 식물이 잘 자라며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다양한 식물상이 분포하고 수많은 종류의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다.

카프리섬은 카프리라는 코무네와 아나카프리라는 코무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해안가에 사람들이 살다가 해적들을 피해 절벽위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아나카프리에 있는 몬테 솔라로산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해발고도가 589미터 이다.

배를 타고 카프리 항에 도착하여 카프리항 변화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푸니쿨라라 하는 케이블카 같은 열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아우구스트 황제의 정원등 곳곳을 돌아보고 내려올 때 관광 택시를 타고 내려와 항구에서 나폴리로 가는 배를 타고 하루의 일정을 마쳤다.

○ 제8일차 : 로마와 로마 교황청의 중심지 바티칸 시국

- ▷ 2,5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유물 유적이 워낙 많아 지하철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을 할때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가능하다면 도보로 여행을 많이 한다. 콜로세움, 바티칸시국, 포폴로 광장, 테르미니역 네 꼭짓점 이내에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이 밀집해 있다. 고대 로마 유적지 뿐만 아니라 피자, 파스타 같은 현지음식도 유명하다.

그리고 경험이지만 예약을 미리 하고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3시간 이상을 줄서야함을 각오해야 한다.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진실의 입에서도 황금같은 시간이 아까워 바로 바티칸시국으로 가야했다.

벤츠에 탑승하여 관광했는데 돈은 들지만 그들은 다른 수단으로 가지 못하는 지역에 주차 가능한 허가받은 자들이다.

		
포로 로마노 유적지	트레비 분수	성 베드로광장

▷ 콜로세움(Colosseo)과 포로 로마노(Foro Romano)

- 이탈리아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소이다.

과거 70년 검투사들의 대결이 펼쳐지던 대형 원형 경기장으로 영화에 나왔던 곳이다. 이곳에 해상전투를 재현하기 위해 몇천톤의 물을 채워 전투하였단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콜로세움 옆 팔라티노 언덕을 오르면 언덕아래 포로로마노가 보인다. 수세기동안 화재와 중세때 건물을 헐어 건축자재로 쓰기도 했다. 남아있는 규모만으로도 당시의 영광과 위엄을 느낄수 있었다.

▷ 트레비 분수(Fontana di Travil)와 스페인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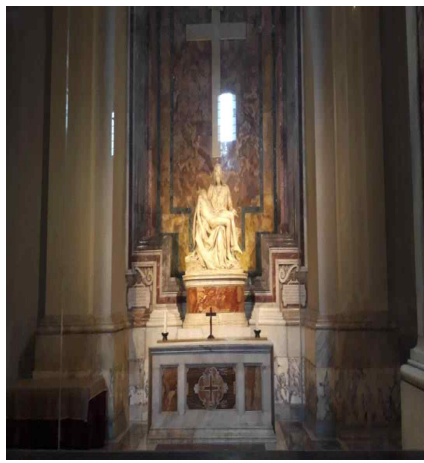
- 로마 폴리 대공 궁전에 있는 트레비분수는 개선문을 본뜬 벽화를 배경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등을 지고 머리위로 동전을 던져 분수에 넣으면 다시 로마를 방문할수 있단다. 믿지않으면서도 너도나도 동전을 던진다. 우리가 갔을때 청소중이었는데 청소기같은 호스로 빨아들인다. 시기를 잘선택해야 할 것 같다.
- 스페인광장은 17세기 스페인대사관 지어져 아직까지 그렇게 불리운다. 이곳이 유명한 것은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에서 오드리헵번이 계단난간에서 젤라토를 먹던 곳이다. 지금은 그곳에서 먹으면 벌금형이다.

▷ 판테온(Pantheon)

- 판테온은 그리스가 더 유명하지만 로마의 판테온은 2천년 기간동안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에 특별하게 받아 들여진다.

▷ 바티칸 시국(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

- 이탈리아의 로마 북서부에 있는 가톨릭 교황국이다. 19세기 이탈리아가 근대 통일국가로 바뀌면서 교황청 직속의 교황령을 상실하게 되자 1929년 라테란(Laterano) 협정을 통해 이탈리아로부터 교황청 주변 지역에 대한 주권을 이양받아 안도라, 산마리노와 함께 세계 최소의 독립국이 되었다.
- 성 베드로 광장은 이탈리아 바로크양식의 거장 화가요 조각가인 베르니니(Giovanni Lorenzo Bernini)가 1656년 설계해 12년만인 1667년 완공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 불리울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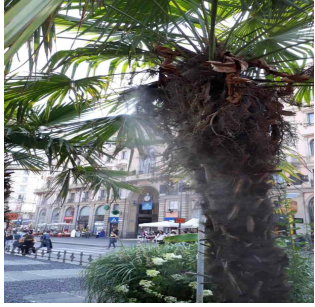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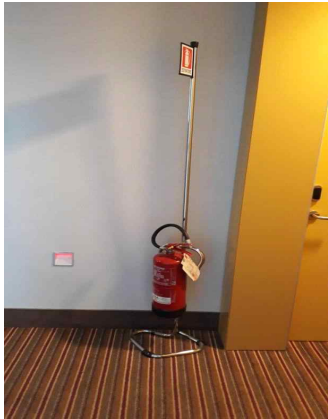
		
조각같은 천장화	천지창조	피에타

○ 제9일차 : 로마 → 인천 → 부산

3. 제안 및 개선 사항

- 해외연수를 통해 공단관련 업무와 연계한 제안 및 개선사항 등
 - ▷ 스포츠센터·공원·장사·공연·도로·상가·주차장 분야 등
 - ▷ 친환경시설·에너지효율향상·녹색정책분야 등

해당부분	현실태	벤치마킹	사 진
공사현장		- 성베드로성당 박물관앞 피냐의 정원의 보수현장 가림막이 다른 성전으로 착각하게 한다 ⇒ 공단사업장내 공사뿐만아니라 공단 행사시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해당부분	현실태	벤치마킹	사 진
서비스제공	공원 관리에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아이디어 적용	정원을 아름답게 밝히면서 전기도 절약할수 있는 거울덮개가 있는 간접등과 열대수가 일렬로 심겨져 있는곳에 수증기를 발산하는 호스를 설치하여 나무와 관광객들에게 시원함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수 있겠다	 
	단조롭고 파손이 쉬워 오래가지 못한다	다양한 형태 스테기통과 재떨이도 튼튼하고 불씨의 걱정을 날려 주는 아이디어가 넘친다	 
	자갈치시장 같이 벽면이 석고보드로 시공된곳의 벽면부착이 어려운곳에 활용	안전장비 뿐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치도구를 만들어 볼수 있는 아이디어의 확장이 있겠다.	
	공원 방문시 단조로운 안내판이 식상하다	아름다운 타일로 안내도 만들어 공원(사진은 카프리섬)을 알리고 사진을 찍는 장소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닥, 벽면등	
		공사안내판에 위급시 비상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응급상황 대비 -공단 공사뿐아니라 다양한 안내판에 적용하면 좋겠다	

4. 배낭여행 결과

○ 총평(주요내용 요지, 여행 소감, 시사점,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등)

- ▷ 로마를 중심으로 남북이 경제적, 역사적, 민족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실제 북쪽에서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고 남부지역에는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보다 작고 머리도 검으며 몸에 털이 많은 라틴계 이다. 북쪽은 여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게르만계 사람 등과 혼혈되어 키도 크고 미녀들도 머리색도 다양하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의 형태가 째다고 한다면 고개를 가우뚱하지만 7개의 소국가로 나뉘어 있다 실제 1871년에야 나라가 통일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유럽전체가 그러하겠지만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고 밀라노가 속한 움브리아주와 베네토주의 두주의 GDP가 국가의 30%를 차지하니 경제가 무너진 남부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게 당연할 것이다. 짧은 지면에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수치상으로 한국보다 나아 보인다. 그러나 연금과 복지정책등에 희생이 없다면 미래를 장담할수 없다.

- ▷ 기원전의 건물도 많고 집들 역시 오랜된 건물들을 잘보존하고 보수하는건 맞지만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는 성향이 있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정체된 느낌이다.

- 기간시설 : 전기 자급률이 나라에서는 20%를 말하지만 앞으로 그러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5%만 자급하고 95%는 프랑스에서 수입한다. 전기요금 체계의 비합리성과 비싼 전기요금에 놀란다. 예전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체르노빌 사고 이후 그런 사고가 나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거라 생각해 수입을 선택한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모든 조명시설이 조도(LUX)가 낮다. 한국과 같이 태양광에 가까운 밝은 조명이 없다. 거의 간접조명이고 에어컨은 상상할수 없다.

고속도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여 건설되어 달리다 보면 비슷하다.

- 공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면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다'는 말이 맞을 듯 하다. 한국처럼 '신속, 정확, 친절' 하고는 거리가 멀다. 예를들어 동사무소 같은곳에 가면 줄을 서있다. 민원업무를 하는데 옆 동료가 말을 걸어오면 그와 이야기 하느라 민원은 뒷전이 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3시간을 기다린 시민들은 다시 돌아가야 하고 더운 시기에 12~3시까지 점심시간이고 자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시 시민들은 와서 줄을 선다. 안되면 내일 다시 와야 한다. 이해할수 없지만 이곳 현실이다.

국민 모두가 적응한 듯 하다. 그러니 유유자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의료체계와 경찰, 공적보험 체계와 더불어 국가재정 부분도 할말이 많다.

- 개인주의 성향은 앞서 언급했지만 당황할때가 있다. 버스에서 물을 쏟아
뒹으며 죄송하다며 넘어가려 하는데 웃는 얼굴로 다가와 내미는 종이를
보면 80유로이다. 도로에서 운전할때나 모든일에 한국에서와 같은 생각은
곤란을 겪게 된다.

- 결론 : 개인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나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
고 말하고 싶다.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의식과 방법대로 잘하
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다만 우리가 바꾸어야할 문제는 관광지 시
설을 추가할때나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만들 때 찾아오는 사람을 중심으
로만 만든다. 그러할땐 자연과 수목, 문화재가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이탈리아에서 배워야 한다면 그런 마음일 것 같다.

- ▷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공단이 시민 중심의 시설공단을 표방한다.

진정한 시민중심으로 나아갈려면 백년을 내다보고 시민들의 협조와 동
반을 위한 계몽과 함께 시설물에 역사를 입히고 소모품같은 구조물은
과감히 버리며 특별한 디자인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장점
인 최첨단의 적절한 조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한 시설물 유지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여부 : ☐예,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공단 감사실에 제출

6. 기타[붙임서류]

○ 항공권 및 숙박 관련 자료(별첨) 1부